



LA 다저스의 류현진이 12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MLB) 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 1회말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다.

류현진, 피홈런 · 빈약한 타선지원 ‘두 번’ 울었다

신시내티전 5이닝 3실점...3경기 연속 勝 없이

류현진(31·LA 다저스)이 타자 친화 구장을 극복하지 못하고 홈런을 두 방이나 허용했다. 힘을 내지 못한 다저스 타선은 류현진을 두 번 울렸다.

류현진은 12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MLB) 신시내티 레즈와의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5이닝 8피안타(2홈런) 3실점을 기록했다.

다저스가 1-3으로 패배하면서 류현진은 시즌 3패배(4승)를 떠안았다. 6이닝 10피안타 5실점(1자책점)을 기록한 지난 8일 뉴욕 메츠전에 이어 2경기 연속 패전이다.

지난달 27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에서 시즌 4승째를 올린 류현진은 3경기 연속 승리와 연을 맺지 못했다.

류현진이 스스로 무너지지는 않았다. 85개의 공을 던진 류현진은 59개를 스트라이크존에 꽂아넣으며 삼진 6개를 속아냈다. 볼넷은 1개를 내줬다.

류현진을 울린 것은 홈런 두 방이었다. 홈런이 많이 나오는 타자 친화 구장인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는 올 시즌 홈런이 가장 많이 나온 구장이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의 파크 팩터에 따르면 이날 경기 전까지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의 올 시즌 홈런 파크 팩터는 1.334로 30개 구장 가운데 가장 높다. 득점 파크 팩터도 1.069에 달하는 대표적인 타자 친화 구장이다.

부상 복귀 이후 처음으로 원정경기에 등판하는 류현진이 어느 때보다 장타를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신시내티가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최하위에 머물러있는 팀이라고는 하지만, 만만치 않은 타선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다. 이날 경기 전까지 신시내티는 내셔널리그 홈 타율 3위(0.259), 출루율 2위(0.334)를 달렸다.

신시내티 타선의 중심이자 내셔널리그 출루율 1위(0.421)를 달리고 있는 조이 보도가 빠진 것은 류현진에게 호재로 여겨졌다. 그러나 역시 만만치 않은 타선이었다.

류현진은 1회말부터 호세 페라사에게 좌월 2루타를 허용하며 장타의 위험성을 맛봤다. 스커터 제넷에 볼넷을 내주며 1사 1, 2루의 위기를 자초했던 류현진은 에우헤니오 수

아레스를 삼진으로 필립 어빈을 2루수 뜯공으로 잡고 실점을 막았다. 문제는 2, 3회였다.

류현진은 2회말 1사 후 브랜던 덕슨에 시속 87.3마일(약 140.5km)짜리 2구째 컷 패스트볼을 투타당해 좌월 솔로포를 얻어맞았다.

3회말 선두타자 스콧 세블러에게도 홈런을 허용했다. 세블러는 류현진의 2구째 시속 89.9마일(약 144.7km)짜리 포심 패스트볼을 잡아당겨 오른쪽 담장을 넘겼다.

류현진을 두 번 울린 것은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한 다저스 타선이었다. 류현진이 고전하면서도 실점을 최소화했지만, 중심타자 저스틴 터너가 선발 라인업에서 빠진 다저스 타선은 무기력한 모습이었다.

류현진이 마운드에서 내려가기 전까지 다저스 타선은 안타 2개를 치는데 그쳤다.

다저스는 1회초 1사 1, 2루의 찬스가 무산된 것을 시작으로 페더슨이 6회초 우월 솔로포를 때려내기 전까지 15명의 타자가 잇따라 발타로 물러났다.

류현진이 내려간 이후에도 다저스 타선은 무기력한 모습을 이어갔다. 페더슨의 솔로 홈런으로 낸 1점이 이날 다저스의 유일한 득점이었다.

뉴시스

1차 쇼케이스 마친 벤투호, 10월에 어떤 변화 있을까

선수 선발 최우선 기준 ‘기술’ … ‘대표팀에 대한 열망 · 간절함도 중요한 요소’

새롭게 출범한 벤투호가 1차 쇼케이스를 마쳤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7일 코스타리카, 11일 칠레와의 A매치 평가전을 마무리했다. 각각 2-0 승리,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2018 러시아월드컵 이후 새롭게 시련담에 앉은 벤투 감독의 데뷔 무대였다. 마찬가지로 1기에 승선한 24명은 새 감독에게 자신을 뽐낼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였다.

24명 엔트리는 벤투 감독 체제에서 선정할 게 맞지만 선수들의 면면을 완벽히 파악한 후, 추구하는 스타일에 어울리게 선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러시아월드컵 최종예선 10경기과 러시아월드컵 조별리그 3경기 등 경기 영상을 참고했다. 추가적으로 대한축구협회 기술파트로부터 조언

을 받았다.

두 차례 평가전을 통해 테스트를 마친 벤투 감독은 향후 선수 선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기술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벤투 감독은 “기준에 대해서 말하면 당연히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전에서 보여준 벤투호의 기본 방향은 빌드업이다. 후반에서 패스를 통해 공격의 활로를 여는 방식이다. 선수들 개개인의 기술이 없다면 어렵다.

볼 킥 능력부터 정확한 패스 넓은 시야를 기본적으로 갖춰야 유망한 조직력을 뽐낼 수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2위 칠레와의 경기에서 상당히 고전했다. 칠레의 강한 압박에 패스 실수가 많았고 전진하는 빈도도 저조했다. 하지만 벤투 감독은 이 틀을 바꾸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갈 방침이다.

벤투 감독이 기술을 가진 선수들을 살펴볼 시간은 충분하다. 다음 달 우루과이(12일), 파나마(15일)와의 평가전까지 한 달이 남았다. 이번에 점검한 24명 외에 새로운 얼굴을 기대할 수 있다.

그는 “23명이 될지, 24명 혹은 25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선수 선발에 대한 마지막 권한은 내가 갖는다. 10월까지 시간이 있다”며 “많은 경기를 보고 분석하고 결정할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표팀에 열망과 간절함도 중요한 요소다. 이번에 24명은 잘 보여줬다”며 선수들에게 정신적인 무장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10월에 일부가 바뀔 수도 있지만 팀을 운영하고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것이다”고 했다.

AG · 벤투호 여정 마친 손흥민 “즐거운 한달이었다”

주장 된 후 슈팅보다 패스 치중 질문에 “좋은 기회 가진 선수 있다면 주는데 맞다”

축구대표팀의 주장 손흥민(토트넘)이 약 한 달의 긴 대표팀 여정을 마치고 소속팀으로 돌아간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새롭게 부임한 파울루 벤투 감독 등 변화가 많았다. 손흥민은 “즐거운 한 달이었다”고 했다.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1일 오후 8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남아메리카의 강호 칠레와의 평가전에서 득점 없이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손흥민은 러시아월드컵을 시작으로 소속팀 프레시즌 일정과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모두 소화했다. 살인적인 일정을 보냈지만 손흥민은 “나만 뛰는 것도 아니다. 아시안게임에 함께 다녀온 황희찬, 황의조 선수도 다 뛰고 있다. 후사는 다 킥계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나에게 대충 혹은 설명할 필요는 없다. 나라를 위해서 뛰는 것이 리얼 정말 책임감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경기를 못할 순 있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2018~2019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을 뒀 손흥민은 1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입성

해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합류했다. 금메달 이후에는 벤투호에 승선했다. 주장으로 설 틈 없이 약 1개월을 보냈다.

손흥민은 “정말 즐거운 한 달이었다. 정말 좋은 결과를 냈고 다 만족스러울 순 없지만 새로 오신 감독님 밑에서 열혈 정도 훈련을 하고 경기도 했다”며 “아시안게임과 대표팀을 통해서 축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 많은 것을 배웠다”고 했다.

주장이 된 후 슈팅보다 패스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나보다 좋은 기회를 가진 선수가 있다면 주는 게 맞다. 내가 좋은 위치라면 내가 때리는 게 맞다”며 “나보다는 다른 선수들이 빛나는 것을 생각하고 경기에 나가는 것은 맞다. 그렇다고 슛을 안 하고 패스만 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상대팀 칠레에 대해선 “좋은 팀이다. 랭킹으로 따져도 우리보다 몇 수 위다. 그래도 많이 싸우고, 이겨낸 부분이 많았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많다고 본다”고 했다.

소속팀에 복귀하면 골장 리그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를 준비해야 한다. 그는 “이제 시작이다. 이동거리가 많았지만



11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축구 대표팀 평가전 한국 대 칠레의 경기, 0:0으로 무승부를 거둔 대표팀 손흥민이 관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평상시 여름과 비슷했다”며 “얼른 소속팀에 가서 감독님, 선수들, 코칭스태프들을 보고 싶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A매치 2경기 연속 결과를 내지 못해 아쉽지만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 같아 만족한다”며 웃었다.

■ 숲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신정,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년도 구리군은 지리산은천, 칠새마을, 화연사, 선진정, 운조루, 패야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물어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